

第7回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제 7 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움

日時 2014年12月6日(土) 9:30~17:20

会場 奈良教育大学大会議室

主催：奈良教育大学 公州大学校（韓国）

共催：東京学芸大学

後援：奈良県教育委員会 奈良市教育委員会 奈良新聞社

第7回

百濟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제 7 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움

日 時 2014年12月6日(土) 9:30~17:20

会 場 奈良教育大学大会議室

主 催 : 奈良教育大学 公州大学校(韓国)

共 催 : 東京学芸大学

後 援 : 奈良県教育委員会 奈良市教育委員会 奈良新聞社

第7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9:00～ 9:30	◇受付		
9:30～ 9:40	◇開会挨拶	奈良教育大学学長	長友恒人
9:40～12:10	◇講演		
	◆百済の城郭—都城を中心に—	公州大学校教授	徐程錫
	◆正倉院宝物にみる百済文化—瑠璃坏を中心に—	奈良国立博物館学芸部長	内藤栄
13:10～13:20	◇挨拶	東京学芸大学副学長	増田金吾
13:20～17:10	◇研究発表		
	◆百済における飛鳥寺造営期の瓦生産	帝塚山大学准教授	清水昭博
	◆埴輪にみる渡来文化	東京学芸大学准教授	日高慎
	◆備後寺町廃寺と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 — 百済と有縁の日本列島所在寺院・日本列島で制作された仏像の 一様相 —	奈良教育大学教授	山岸公基
	◆7・8世紀の百済系渡来人と日本 —百済王氏の成立の動向を中心として—	滋賀県立大学大学院生	崔恩永
	◆古代日韓における筒形土製品小考 —その形態を中心として—	帝塚山大学大学院生	西垣遼
	◆導入期畿内系横穴式石室における 副葬土器の器種構成研究	東京学芸大学大学院生	李スルチョロン
	◆砂宅智積碑から考える書風の流伝	奈良教育大学大学院生	早川緑
17:10～17:20	◇閉会挨拶	公州大学校総長	金昌護

제 7 회 백제문화 국제 심포지움

9:00~ 9:30 ◇접수

9:30~ 9:40 ◇개회인사 나라교육대학 학장 나가토모 츠네토

9:40~12:10 ◇강연

◆백제의 성곽—도성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수 서정석

◆정창원보물에 보이는 백제문화—유리잔을 중심으로—나라국립박물관 학예부장 나이트우 사카에

13:10~13:20 ◇인사말 동경학예대학이사·부학장 마스다 킨교

13:20~17:10 ◇연구발표

◆백제의 아스카데라 조영기의 기와생산 테츠카야마대학 준교수 시미즈 아키히로

◆하나와에 보이는 도래문화 동경학예대학 준교수 히다카 신

◆빈고테라마치 폐사와 신해년명 관음보살입상 나라교육대학 교수 야마기시 코우키
 -백제와 관계하는 일본열도소재사원·일본열도에서 제작된 불상의 한 양상-

◆7·8세기의 백제계 도래인과 일본 시가현립대학 대학원생 최은영
 -백제왕씨의 성립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대 한일의 통형토제품 소고 테츠카야마대학 대학원생 니시카키 료
 -그 형태를 중심으로-

◆도입기 기내계 횡혈식석실의 동경학예대학 대학원생 이슬초롱
 부장토기의 기종구성 연구

◆사택지적비로부터 고찰한 서풍의 전래 나라교육대학 대학원생 하야카와 미도리

17:10~17:20 ◇폐회 인사말 공주대학교 총장 김창호

「第7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奈良教育大学
学長 長友恒人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第1回開催は2008年、韓国公州大学校において公州大学校と東京学芸大学の主催により開催され、百済文化に関する様々な研究発表を通して、貴重な成果が得られたと伺っております。

翌年開催された第2回シンポジウムから奈良教育大学も参加することとなり、「大和・飛鳥・奈良時代から未来へ」と題し、日本の古都奈良にある奈良教育大学で開催しました。平城遷都1300年の年にあたるその翌年には、第3回としてプレシンポジウムが7月に東京学芸大学で開催され、12月に奈良教育大学で本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した。

以後、韓国と日本で交互に毎年開催を継続し、7回目を迎える今年は、公州大学校、奈良教育大学の主催、東京学芸大学の共催の下、奈良教育大学において開催される運びとなりました。

今回のテーマは「7世紀から8世紀の百済と日本（倭国）」です。百済は4世紀後半から、中国の南朝や日本列島の倭国との関係を深めました。百済が475年に漢城（ソウル）から熊津（公州）へと遷都した後、武寧王（501～523）と聖王（523～554）の二代にわたって、最盛期を迎え、仏教と仏教美術をはじめとする大陸の文化を日本列島にもたらしました。538年の聖王による泗泚（扶余）への遷都後も日本列島との関係はきわめて密接でありました。663年の白村江の戦いによる百済滅亡後も、東大寺大仏の完成に力を尽くした国中公麻呂や百済王敬福など百済から日本への亡命者（渡来人）が、奈良時代の文化を牽引しました。本シンポジウムのテーマ「7世紀から8世紀の百済と日本（倭国）」は、このような百済と飛鳥～奈良時代の日本列島との関係に、新たな視座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第1回からこの度の第7回の開催に至るまで、一貫して「百済と日本の文化に関する研究交流を通じて、日韓関係の歴史的な理解を深め、より確かな国際交流の絆を築いていく」という目的の下、三大学が研究交流を継続してきたことは、未来に繋がる確かな日韓交流に貢献してきたことと確信しております。本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より一層三大学の研究交流が充実し、日韓の相互理解とさらなる友好親善のための機会となりますことを祈念します。

「제 7 회 백제 문화 국제심포지엄」의 개최에 즈음해서

나라교육대학 학장
나가토모 쓰네토(長友恒人)

「백제 문화 국제 심포지엄」 제 1 회 대회는 2008 년 한국 공주대학교에서 공주대학교와 동경학예대학의 주최로 열려 백제 문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귀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듬해 제 2 회 심포지엄부터는 나라교육대학도 참가해서 「야마토·아스카·나라시대에서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고도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헤이조 천도 1300년의 해에 해당하는 그 다음해에는 제 3 회 프레심포지엄이 7 월 동경학예대학에서 개최되고 12 월 나라교육대학에서 본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가 되어 7 회째를 맞이하는 금년은 공주대학교, 나라교육대학(주최), 동경학예대학(공동개최)이 참가해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테마는 「7 세기부터 8 세기의 백제와 일본(왜국)」입니다. 백제는 4 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남조와 일본열도의 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백제는 475 년에 한성(서울)에서 웅진(공주)으로 천도한 후, 무령왕(501~523)과 성왕(523~554)의 2 대에 걸쳐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불교와 불교미술을 비롯한 대륙의 문화를 일본열도에 전했습니다. 538 년 성왕에 의해 사비(부여)로 천도한 후에도 일본 열도와의 관계는 극히 밀접했습니다. 663 년 백촌강의 전투로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동대사 대불의 완성을 위해 진력한 구니나카노 기미마로와 백제왕 경복 등 백제에서 일본으로 온 망명자(도래인)들이 나라시대의 문화를 견인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테마인 「7 세기부터 8 세기의 백제와 일본(왜국)」은 이러한 백제와 아스카~나라시대의 일본열도와의 관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1 회부터 이번의 제 7 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백제와 일본의 문화에 관한 연구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층 견고한 국제 교류의 신뢰를 구축해 간다」는 목적하에 3 대학이 연구 교류를 계속해 온 것은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교류에 확실한 공헌을 한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3 개 대학의 연구 교류가 한층 충실해져서 한일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百済の 城郭

—都城を中心に—

公州大学校

徐 程 錫

周知の通り、百済は紀元前18年に河南慰礼城で建国した。その後、羅唐連合軍によって660年滅亡するまで、約700年にわたる長い歴史を有する。その間、都邑を熊津(公州)、泗泚(扶余)など、二度も移すことになるが、それによって百済の歴史は、その都の場所によって漢城期(18B.C.~475)、熊津期(475~538)、泗泚期(538~660)で分けるのが一般的である。このような二度の遷都と700年近くの長い歴史の中で、百済は多くの城郭を築城した。「三国史記」には、三国の築城記事が出ているが、その最も多い築城の記事を残しているのが百済なのである。百済は、建国初から楽浪、靺鞨、馬韓などに囲まれており、相対的に多くの築城記録が残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このような多くの築城記録を残している百済の城郭は、大きく分けて、都城と山城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都城は、言葉通り、都を囲んだ城郭を示すが、ここでは、都全体を囲む羅城と、その中の王宮を取り囲む王城に分かれる。山城は、王都から国境に至る幹線道路の周辺に逐造した城郭を言う。都城が一般的に平地や緩やかな丘陵の上に築造されるのに対し、このような幹線道路周辺に築造された城郭は、高い山峰に築造されることが大半であるため、普通、山城と呼ばれる。漢城期百済の王都は、現在のソウル市松坡区の一帯であった。ここには、現在、風納洞土城と夢村土城、そして石村洞古墳群が位置し、そこが漢城期百済の王都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そのうち、風納洞土城は、初期河南慰礼城として推定される。そのうち、百済は、近肖古王26年(371)に漢山に移都するようになり、そのときの場所が夢村土城と思われる。熊津期の百済王宮は、公州公山城の中にあつたと考えられる。つまり、公山城が王城だったことになる。公山城の中には、王宮址と推定される平坦面が残っており、ここからは、当時の瓦当や瓦が多く出土されている。その他にも、当時の掘立柱建物址が残っている。ただ、正確な構造や規模は不明で、そのことから、日本の飛鳥地域で発見された飛鳥時代の王宮を参考する必要がある。泗泚期に百済王宮がどこにあつたのかは、未だ謎である。従来は、扶蘇山城南麓の扶余邑官北里一帯が有力な候補地として挙げられていた。しかし、発掘の結果、百済当時の道路遺跡や池などは発見されたものの、いざ王宮地として見なされる遺跡の跡は発見されなかった。そのため、今後は、別の角度からの検討が必要である。このような点から、扶蘇山城は公州城と同じく当時の王城だったと考えられる。

百濟의 城郭

- 都城을 中心으로 -

徐程錫

(公州大學校)

주지하다시피 百濟는 紀元前 18 년에 河南慰禮城에서 建國하였다. 그 후 羅唐聯合軍에 의해 660 년에 滅亡하기까지 약 700 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동안 도읍을 熊津(公州), 泗泚(扶餘) 등으로 두 번이나 옮겼는데, 따라서 백제의 역사는 보통 그 도읍지의 위치에 따라 漢城期(18B.C.~475), 熊津期(475~538), 泗泚期(538~660)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두 번의 천도와 700 년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남기는 동안 백제는 많은 성곽을 축성하였다. 『三國史記』에는 삼국의 축성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축성 기사를 남기고 있는 것이 백제다. 백제는 건국 초부터 樂浪, 靺鞨, 馬韓 등에 에워싸여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축성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많은 축성 기록을 남기고 있는 백제의 성곽은 크게 보아 都城과 山城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성은 말 그대로 도읍지를 에워싼 성곽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도읍지 전체를 에워싼 羅城과 그 안에 왕궁을 둘러싼 王城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성은 王都에서 국경에 이르는 幹線道路 주변에 축조한 성곽을 말하는데, 도성이 대체로 평지나 나지막한 구릉 위에 축조되어 있다면 이러한 간선도로 주변에 축조된 성곽은 높은 山峰에 축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산성으로 부른다.

漢城期の 백제 王都는 현재의 서울시 松坡區 일대였다. 이곳에는 현재와 風納洞土城과 夢村土城, 그리고 石村洞古墳群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이 漢城期 백제의 王都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 風納洞土城은 초기 河南慰禮城으로 비정된다. 그러다가 백제는 近肖古王 26 년(371)에 漢山으로 移都하게 되는데, 그 때 移都한 곳이 夢村土城이 아닌가 한다.

熊津期の 백제 王宮은 公州 公山城 안에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공산성이 곧 王城이었던 셈이다. 공산성 안에는 王宮址로 추정되는 평탄면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는 당시의 瓦當과 기와가 많이 출토되었다. 아울러 당시의 掘立柱建物址도 남아 있다. 다만 정확한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日本 飛鳥地域에서 발견된 飛鳥時代 王宮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泗泚期에 백제 왕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보통은 扶蘇山城 南麓의 扶餘郡 官北里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 왔는데, 발굴해 본 결과 백제 당시의 도로유적이거나 연못 등은 발견되었지만 정작 왕궁지로 볼 만한 유적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주 공산성과 마찬가지로 부소산성이 당시의 왕성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瑠璃坏(るりのつき)はコバルトブルーの杯部分に銀製の脚をつけたワイングラスのような形で、これまでガラス部分は西アジア製、脚は中国もしくは韓半島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てきた。なぜ二つの部分が違う場所で作られたのか、いつ作られて、いつ日本に請来されたのかなど、謎の多い宝物である。

坏は口縁をやや開いたコップの形で、側面に同色のガラスによる円環を22個貼り付けている。材質はヨーロッパから西アジアにかけて成功したアルカリ石灰ガラスであることから、産地は西アジアと推定されている。なお、きわめてよく似たガラス器が韓国の松林寺の五層磚塔から発見されている。

脚は東アジアで製作されたと推定されているが、もう少し時代や地域を特定できないかを考えてみたい。脚には二つの蔓文様が表されており、地には小さい粒(魚々子〔ななこ〕)が打たれている。蔓文様は一部が動物の顔になっている。この顔は虎のようであり、胴体にあたる部分にはまったく手足などの龍の要素は見られない。この文様を良く見ると、右側に動物の顔になりかけの文様を見ることができる。また、動物の顔には巻いた毛のような部分が見られるが、これは右の顔になりかけの文様部分にも見られる。すなわち、これは文様を表しているうちに動物の顔に似てきてしまい、本当に動物の顔になってしまったと解釈するのが良いかと思われる。

ところで、この金具で製作地が比較のおさえやすい部分は、地の魚々子の打ち方である。粒と粒の間を離し、やや疎らな感じを受ける。これは韓半島か日本の打ち方であり、中国・唐の打ち方とは違う。これより、産地の候補地は韓半島か日本にほぼ限定できる。次は蔓文の表現であるが、特徴は巻貝風の文様である。これは二重、もしくは三重に巻き、先端が焰の先のように揺らめく形で、しかも短い線を並列して刻んでいる点に特徴がある。この文様は2008年に発見された韓国・益山の弥勒寺址西石塔から発見された金銅舍利容器に、これときわめてよく似ている。この寺院は百済の王后によって建立され、西石塔の舍利は639年に納められた。また、受座金具は六弁のパルメット文であるが、これも弥勒寺址から出土した瓦や百済の磚などに見ることができる。

なお、文様の一部が生き物に変わってゆくという表現も、百済にしばしば見ることができる。たとえば、韓国の扶余外里で発見された百済の磚(タイル)は、旋回する雲文が鳥(鳳凰)に変化したところを表現しており、鳳凰の羽や脚は雲の形をそのまま残している。瑠璃坏の蔓の一部が動物の顔に変わったことも、百済の文様表現の特徴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以上より、瑠璃坏の金具は7世紀半ばの百済において作製され、ガラス坏に接着され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日本へは百済が滅びた660年以前と考えられる。

講演では瑠璃坏を中心に、百済と関連の深い宝物を紹介したい。

유리잔은 코발트블루의 잔부분에, 은제의 다리(받침)를 붙인 와인잔과 같은 형태로, 이제껏 유리부분은 서아시아제, 다리는 중국, 혹은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왔다. 어떠한 연유로 두 부분이 다른 장소에서 제작되었는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일본에 전래된 것인지 등, 수수께끼가 많은 보물이다.

잔은 입을 약간 벌린 컵 형태로, 측면에 같은 색의 유리로 원환(둥근고리)를 22 곳 부착했다. 재질은 유럽에서 서아시아에 걸쳐 널리 퍼진 알칼리성 석회유리인 것으로 부터, 산지는 서아시아로 추정된다. 다만, 상당히 유사한 유리용기가 한국의 송림사 5 층전탑에서 발견되었다.

다리는 동아시아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좀더 시대나 지역을 한정시킬수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리에는 두개의 덩쿨문양이 나타나있고, 바닥 부분에는 작은 알갱이(어자문=생선알모양) 모양으로 두드려 졌다. 덩쿨문양은 일부가 동물의 얼굴이다. 이 얼굴은 호랑이로 보이며,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팔다리 등, 용으로 보이는 요소는 없다. 이런 문양을 잘 보면, 우측에 동물의 얼굴이 되어 가는 듯한 문양을 볼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얼굴에는 곱슬머리와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는 우측에 얼굴이 되어가는 듯한 문양부분에도 보인다. 즉, 이것은 문양을 나타내는 사이에 동물의 얼굴에 가까워져, 정말로 동물 얼굴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금속기의 제작지가 비교적 알기쉬운 것은, 바닥의 어란문(생선알 모양)을 두드린 방식이다.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를 떨어뜨려, 약간 성긴 맛을 주는데, 이는 한반도나 일본의 방식으로, 중국의 당나라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로부터 산지의 후보지는 한반도나 일본으로 거의 한정할 수 있다. 다음은 덩쿨문양의 표현인데, 특징은 달팽이에 가까운 문양이다. 이것은 2 중, 혹은 3 중으로 감아, 끝부분이 불꽃의 끝과 같이 출렁이는 모양으로, 거기에 짧은 선을 병렬로 하여 새긴 점도 특징이다. 이 문양은 2008 년에 발견된 한국의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용기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미륵사는 백제의 왕후가 건립하여, 서석탑에 사리는 639 년에 안치되었다. 또한 사리를 받치는 금속용기는 6 잎의 팔메트 문양인데, 이것도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나 백제의 전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양의 일부가 동물로 변해가는 표현도, 백제에서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부여 외리에서 발견된 백제의 전들은, 선회하는 구름이 봉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 봉황의 날개나 다리는 구름의 모양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유리잔의 덩쿨 일부가 동물의 얼굴로 변환것도, 백제의 문양표현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상으로 부터 유리잔의 금속기는 7 세기 중반에 백제에서 제작되어, 유리잔에 접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 전래한 시기는 백제가 멸망한 660 년 이전이라 생각된다.

강연에서는 유리잔을 중심으로, 백제와의 관련이 깊은 보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はじめに

588年、日本で最初の本格的な仏教寺院が飛鳥に建設された。飛鳥寺の造営に際し、百済から大きな技術支援があったことが『日本書紀』などの文献史料によってわかる。日本における瓦づくりも飛鳥寺の造瓦からスタートした。今回の発表では、百済から日本への造瓦技術の伝来の実態を把握すべく、発源地である百済の泗泚期(538~660年)の瓦生産について、若干の検討をおこないたいと思う。

2. 百済の瓦生産の諸特徴

百済の都邑の地であった忠清南道扶餘周辺でみつまっている泗泚期の瓦窯は15か所ある。その多くは泗泚都城とその周辺に立地するが、扶餘の西方約25キロメートルの位置にある金德里窯(舒川郡)や本義理窯(青陽郡)、冠峴里窯(同)は都城から離れた立地にある。都城周辺の瓦窯の立地としては、亭岩里窯や汪津里窯、井洞里窯などのように、錦江の対岸に大規模窯が配置されるという特徴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

瓦窯における生産の体制は、2基の窯を1単位として操業する「2窯」体制を亭岩里窯、王興寺窯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瓦と土器を併焼する瓦陶兼業体制も汪津里窯、井洞里窯、亭岩里窯、冠峴里窯などにみることができる。消費地との関係を見ると、単一の窯で複数の消費地の瓦生産をおこなう例が多くみられる。なかでも、亭岩里窯の場合、少なくとも15か所の消費地の瓦生産をおこなっていたことが瓦の同範関係から明らかである。消費地のなかには王宮と推定される官北里遺跡や王家の願利である陵山里寺跡も含まれており、国家が関与した官営の工房とみることができる。一方、陵山里寺窯、定林寺窯など、施設(寺院)に隣接し、その施設のみに瓦を供給した窯もある。ただし、近接窯の製品のみで瓦を賄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ようであり、ほとんどの消費地は複数の生産地とのあいだに関係をもっていたとみられる。

3. 亭岩里窯における瓦工の実態

亭岩里窯は6世紀後半~7世紀前半に操業していた官営工房であり、同窯の分析によって当該期の百済の官営工房の体制の一端を知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亭岩里窯はA~C地区にわかれ、B→A→C地区の順で操業されたとみられる。B地区の軒丸瓦にみられる製作技法は、取り付けの丸瓦の先端加工法により「片ほぞ形」と「凹面斜めカット形」の二系統にわかれる。両系統の製品の範傷の進行状況を確認したところ、瓦の傷に大きく差は認められないことから、両系統はほぼ同じ時期に生産に関与していたものと推定することができる。二系統の工人は瓦範を共有し、軒丸瓦を生産していたのである。B地区には登窯と平窯がある。製作技法にみられた二系統の工人の関与が、窯の構造に反映した可能性もあろう。A地区ではB地区と同系文様の軒丸瓦が出土する。製作技法はB地区にみられる「片ほぞ形」の丸瓦先端加工法である。A地区の窯の形態は平窯であり、「片ほぞ形」系瓦工と平窯の関係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一方、C地区の軒丸瓦は文様、製作技法ともA、B地区とは異なる。ここにもA、B地区とは異なる瓦工の関与がうかがえ、亭岩里窯が特定の工人集団に帰属するものでなかった様子をうかがい知ることができる。

4. 百済と日本の初期瓦生産

百済の瓦生産には、遠隔地生産体制、瓦陶兼業体制、複数供給体制(生産地)、複数生産体制(消費地)、「二窯」体制などの特徴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飛鳥寺の造営に携わった様々な技術者は、百済という国を通じて派遣された人々であった。したがって、造瓦工人である瓦博士も百済国の官人であり、官営工房に属していた可能性は高い。今回の検討で確認した百済の瓦生産の諸特徴は、じつは飛鳥時代の瓦生産にも見受けられる特徴でもある。そうした点から、百済の瓦博士が伝えたのは、単に瓦という屋根材を作る技術だけではなく、生産に関わるシステムをも包括した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参考文献

- 金誠亀・申光燮・金鐘萬・姜熙天1988『扶餘亭岩里窯跡I』国立扶餘博物館
清水昭博2012『古代日韓造瓦技術の交流史』清文堂

1. 머릿말

588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불교사원이 아스카에 건립되었다. 아스카데라의 조영시에, 백제에서 큰 기술지원이 있었음이 『日本書紀』 등의 문헌사료로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기와제작도 아스카데라의 조와에서 출발하였다. 금번 발표에서는 백제에서 일본에 조와기술이 전래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발원지인 백제의 사비기(538~660年)의 와생산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2. 백제의 와생산의 여러특징

백제의 도읍이었던 충청남도 부여 주변에서 발견되는 사비기의 와요는 15곳이다. 그 대부분은 사비도성과 그 주변에 입지하는데, 부여의 서쪽 약 25킬로미터에 위치하는 금덕리요(서천군)이나 본의리요(청양군), 관현리요(청양군)는 도성에서 떨어진 입지이다. 도성주변의 와요의 입지로서는, 정암리요나, 왕진리요, 정동리요 등과 같이, 금강의 강가에 대규모 가마가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와요에서의 생산체제는, 2기의 요를 1 단위로써 조업하는 2요 체제를 정암리요, 왕흥사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와와 토기의 같이 굽는 와도겸업체제도 왕진리요, 정동리요, 정암리요, 관현리요 등에 보인다. 소비지와외의 관계를 보면, 단일 요에서 복수의 소비지에 대한 와생산을 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정암리요의 경우, 적어도 15개 소비지의 와생산을 했던 것이 기와의 동범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소비지 중에서는 왕궁이라고 추정되는 관북리유적이거나 왕가의 원찰인 능산리사지도 포함되어, 국가가 관여한 관영공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능산리사지요, 정림사요 등, 시설(사원)에 인접하여, 그 시설에만 기와를 공급한 가마도 있다. 다만, 근접요의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던 것인지, 대부분의 소비지는 복수 생산지와외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정암리요 와공의 실태

정암리요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조업한 관영공방이며, 이 가마의 분석에 의해 해당기의 백제 관영공방체제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암리요는 A~C지구로 나뉘며, B→A→C지구의 순으로 조업했었다고 보인다. B지구의 것으로 보이는 수막새의 제작기법은, 막새의 끝에 부착시키는 가공법에 의해 막새의 뒷면의 반을 반원형으로 직접 수키와에 접착시키는 방법과, 틀에서 떼낸 막새를 수키와와 접합시킨 막새에 붙이는 방식의 2계통으로 나뉜다. 양계통의 제품의 범상(기와를 상처)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기와 상처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양계통은 거의 같은 시기에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계통의 공인은 와범을 공유하며, 수막새를 생산하고 있던 것이다. B지구에는 등요와 평요가 있다. 제작기법에 보이는 두 계통의 공인의 관여가, 가마의 구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A지구에서는 B지구와 동일계통 문양의 수막새가 출토한다. 제작기법은 B지구에 보이는 막새의 뒷면의 반을 반원형으로 직접 수키와에 접착시키는 방법의 막새 끝부분 가공법이다. A지구의 가마의 형태는 평요이며, 막새의 뒷면의 반을 반원형으로 직접 수키와에 접착시키는 방법의 와공과 평요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한편, C지구의 수막새의 문양, 제작기법 모두 A, B지구와는 다르다. 여기에도 A, B지구와는 다른 와공의 관여가 보이며, 정암리요가 특정공인집단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형태임을 알 수가 있다.

4. 백제와 일본의 초기 와생산

백제의 와생산에는 원격지생산체제, 와도겸업체제, 복수공급체제(생산지), 복수 생산체제(소비지), 「2요」 체제 등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아스카데라의 조영에 종사했던 여러 기술자는, 백제라는 나라를 통하여 파견된 사람들 이었다. 따라서 조와공인이었던 와박사도 백제국의 관인이며, 관영공방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검토에서 확인한 백제의 와생산의 모든 특징은, 실은 아스카 시대의 와생산에도 보이는 특징이다. 그러한 점에서, 백제의 와박사가 전한것은, 단순히 기와라는 지붕재를 만드는 기술에 한하지 않고, 생산에 관한 시스템도 포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金誠龜・申光燮・金鐘萬・姜熙天 1988 『扶餘亭岩里窯跡 I』 国立扶餘博物館
清水昭博 2012 『古代日韓造瓦技術の交流史』 清文堂

埴輪にみる渡来文化

東京学芸大学 日高 慎

日本の古墳時代には多くの渡来人が存在した。筆者は第5回百済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東国古墳時代における渡来文化の流入と展開」を口頭発表した。その内容を含めて、公州大学校百済文化研究所『百済文化』第50輯に同じ題名で論文を発表した（日高2014）。そこでは、東国におけるさまざまな渡来系資料の具体的な事例について言及し、日本列島内の流入ルートについて考察した。

今回の発表では、日本列島にほぼ限定される埴輪を取り上げ、埴輪表現のなかにみられる渡来文化について報告したい。さらに、韓国栄山江流域に存在する埴周土器とも呼ばれる埴輪に類する資料についても取り上げたい。これらの資料は日本列島と朝鮮半島との交流の結果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改めてその位置づけを考えてみたい。

埴輪表現のなかにみられる渡来文化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な大きく3つの視点がある。

1. 渡来人あるいは渡来人の影響がみられる人物埴輪
2. 渡来系と考えられる器物を表現した形象埴輪
3. 朝鮮半島の埴周土器の影響と思われる壺形埴輪

1については、古墳時代の人びとを表現した人物埴輪のなかに、渡来人そのものが居たことを示すことでその影響の様を明らかにする。特に埴輪列として沢山の人物埴輪が立て並べられたなかに渡来人が存在する意義を考えたい。

2については、古墳時代に新たに登場した器物として胡籙がある。従来実物としての胡籙は出土品に類例があったが、それを表現した埴輪が近年発見されたので、その背景について考察したい。また、古墳時代の馬や牛も弥生時代以前には日本列島に存在しなかった動物であり、渡来系資料のひとつである。改めて馬の埴輪全体に対して渡来文化を見出すのは難しいものの、装着されている馬具のなかにそれを指摘することはできる。

3については、百済系の須恵器平底壺や類例の少ない壺とも朝顔ともいえそうな形態の埴輪や土器などが存在する。

以上のような要素を具体的にみていくことにより、日本列島に渡来人が果たした役割や影響をひもとく事ができるようになるだろう。第5回百済シンポジウムでの報告は、古墳時代の日本列島に渡来してきた物質資料そのものをあつかった。今回の報告では、埴輪を通して古墳時代の精神世界に及ぼした渡来文化の影響という点にも視野を広げて報告したい。

参考文献

- 太田博之 2010「朝鮮半島期限の服飾・器物を表現する埴輪について」『古代』123 pp.111-127
日高 慎 2014「東国古墳時代における渡来文化の流入と展開」『百済文化』50 pp.349-362

일본의 고분시대에는 많은 도래인이 존재했다. 필자는 제 5 회 백제심포지움에서 「東国古墳時代における渡来文化の流入と展開」(「동국 고분시대의 도래문화의 유입과 전개」)를 구두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百濟文化』 제 50 집에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日高 2014). 이 논문에서는, 동국지방의 여러가지 도래계 자료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일본열도내의 유입루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금번의 발표에서는 일본열도에 거의 한정된 하니와를 주제로, 하니와 표현에 보이는 도래문화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 영산강 유역에 존재하는 분주토기라고도 불리는 하니와와 비슷한 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이러한 자료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교류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는 바, 새로이 그 위치를 정해보고자 한다.

하니와 표현에 보이는 도래문화에 대하여는, 이하와 같은 3가지의 커다란 시점이 있다.

1. 도래인 혹은, 도래인의 영향이라 보이는 인물하니와
2. 도래계라고 보이는 기물을 표현한 상형하니와
3. 한반도 분주토기의 영향이라 생각되는 호형(단지모양)하니와

1 에 대해서는, 고분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한 인물하니와 중에서, 도래인 그 자체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 영향의 양상을 명확히 한다. 특히, 하니와열로써 많은 인물하니와가 줄지어선 모양 중에 도래인이 존재하는 의의를 생각하고자 한다.

2 에 대해서는, 고분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기물로써 호록(화살통)이 있다. 종래에 실물로써 화살통이 출토한 예는 있었으나, 그를 표현한 하니와가 최근 발견되어, 그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싶다. 또한, 고분시대의 말이나 소도 야요이시대 이전에는 일본열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로, 도래계자료의 하나이다. 새롭게 말의 하니와 전체에 대하여 도래문화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긴해도, 거기에 장착된 마구 중에서는 지적이 가능하다.

3 에 대해서는 백제계의 스에키평저호나, 유사례가 적은 단지(호)중에서 나팔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한 형태의 하니와나 토기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감으로써, 일본열도에 도래인이 이룩한 역할이나, 영향을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5 회 백제심포지움의 보고는, 고분시대의 일본열도에 도래해 온 물질자료 그 자체를 주제로 했다. 금번의 보고에서는 하니와를 통하여 고분시대의 정신세계를 포함한 도래문화의 영향이라는 점에도 시야를 넓혀 보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太田博之 2010 「朝鮮半島期限の服飾・器物を表現する埴輪について」『古代』123 pp.111-127
日高 慎 2014 「東国古墳時代における渡来文化の流入と展開」『百濟文化』50 pp.349-362

備後寺町廃寺と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

— 百済と有縁の日本列島所在寺院・日本列島で制作された仏像の様相 —

奈良教育大学 山岸 公基

『日本霊異記』（奈良・薬師寺僧景戒撰。822年以降まもなくの完成と推定）上巻第七「亀の命を贖ひて放生し、現報を得て、亀に助けらるる縁」は、百済国の人禪師弘済が、百済の乱の際に日本から派遣された備後国（現広島県東部）三谷郡の大領の先祖に招請されて渡来し、三谷郡に三谷寺を建立したことを伝える。現在広島県三次市向江田町寺町に所在する寺町廃寺は、『日本霊異記』の三谷寺に当たることが有力視され、細長く鑄立ち弁端が強く反転する八葉素弁の軒丸瓦（下端に「水切り」と称される三角状の突起を伴う）の出土が特徴的である。

石田尚豊氏は、備後を含む吉備地方に出自を持つ豪族笠氏により造立されたことが銘記から明らかな東京国立博物館保管観音菩薩立像〔法隆寺献納宝物第165号。辛亥年（651）在銘。銘記は以下の通り。「辛亥年七月十日記、笠評君名大古臣、辛丑日崩去辰時故、兎在布奈太利古臣、又伯在建古臣二人志願」。「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と略称する〕台座の八葉蓮弁に寺町廃寺出土の軒丸瓦蓮弁との酷似を認め、先行研究に導かれながら、互いに関係を有する百済系の造形と位置づけた（石田尚豊「飛鳥・白鳳時代の小金銅仏」。『奈良の寺7 法隆寺 小金銅仏』所収、1974年、岩波書店）。石田氏の所論には、『日本書紀』『応神紀』に記される笠臣の本拠「波区芸（はくき）県」を三谿（＝谷）郡にあてるなどやや飛躍もあるが、寺町廃寺と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の性格規定については傾聴すべき内容と考えられる。

発表者は、寺町廃寺出土軒丸瓦と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とが一連の造形上の脈絡を持つとの前提に立ち、寺町廃寺を百済と有縁の日本列島所在寺院、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を百済と有縁の日本列島で制作された仏像と考えている。そのうえで、百済の故地に遺る仏像や日本の飛鳥時代の仏像と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との比較〔辛亥年銘観音菩薩立像の心前持宝珠の手勢は、忠清南道瑞山磨崖三尊像右脇侍菩薩立像など百済に淵源するが、奈良・法隆寺夢殿観音菩薩立像（救世観音）など百済に学んだ6世紀末～7世紀前半の日本作例も知られる〕、百済の瓦埴・日本飛鳥時代の瓦の蓮華文と寺町廃寺出土埴・軒丸瓦との比較、あるいは百済寺院の類例が管見に及ばない寺町廃寺の伽藍配置（南の中門を入ると西に金堂、東に塔、北に講堂が配置され、中門両側から講堂両側へと回廊をめぐる、奈良・法起寺の伽藍配置と共通するいわゆる「法起寺式」）に関する検討などを通じて、百済と有縁の日本所在寺院や日本で制作された仏像が、百済の伝統をどのように伝え、またどのように日本化してゆくのかについて、具体的様相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たいと思う。

나라교육대학 야마기시 코우키

『日本靈異記』(나라 · 藥師寺僧 景戒찬. 822 년 이후, 가까운 시기 완성이라 추정)상권제 7 「거북의 목숨을 사서 방생하고, 현보를 얻어 거북의 도움을 받은 인연」은, 백제인의 선사홍제가, 백제의 난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 파견된 빈고국(현 히로시마현 동부) 삼곡군의 대령의 선조에 초청되 도래해, 삼곡군에 삼곡사를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히로시마현 미요시三次市 무코우에다마치 테라마치에 소재하는 테라마치 폐사는『日本靈異記』의 삼곡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력시되어, 세장형으로 날카롭게 선, 앞끝이 강하게 반전하는 팔엽소변의 수막새(하단에 물끓키라고 불리는 삼각형의 돌기를 동반)의 출토가 특징적이다.

이시다 히사토요씨는 備後빈고를 포함한 吉備키비노지방(현 오카야마현 전역과 히로시마현 동부)에 연원을 가지는 호족 카사씨로부터 조립된 것이 기록에서 확실한, 동경국립박물관 보관 관음보살입상 「법륜사 현납보물 제 165 호, 신해년(651)명. 명문은이하와같다. 「辛亥年七月十日記、笠評君名大古臣、辛丑日崩去辰時故、児在布奈太利古臣、又伯在建古臣二人志願」. 「신해년명관음보살입상」이라 약칭한다] 대좌의 팔엽연변에 테라마치 폐사출토의 수막새의 연변과의 흡사함을 인정해, 선행연구를 따르면서, 상호관계를 가지는 백제계의 조형이라고 평가하였다(石田尚豊「飛鳥 · 白鳳時代の小金銅仏」)『奈良の寺 7 法隆寺 小金銅仏』등재, 1974 년, 岩波書店) 이시다씨의 논지는, 『日本書紀』 「応神紀」에 나오는 카사히메의 본거지「波区芸(はくき)県」을 三谿(=谷)郡에 맞추는 등 약간의 비약도 있으나, 테라마치폐사와 신해년명관음보살입상의 성격규정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발표자는, 테라마치폐사 출토 수막새와 신해년명관음보살입상이 일련의 조형상의 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여, 테라마치 폐사를 백제와 관계를 가지는 일본열도 소재사원, 신해년명관음보살입상을 백제와의 관계를 가지는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불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백제의 옛터에 남아있는 불상이나 일본의 아스카시대의 불상과의 신해년명 관음보살입상과의 비교 「신해년명관음보살입상이 북부에 표현한 지보주의 자세는, 충청남도 서산 마애삼존상 우협시보살입상등, 백제에 연원하는데, 나라 법륜사유메도노 관음보살입상(구세관음)등, 백제에서 배운 6 세기말에서 7 세기 전반의 일본 작품도 알려진다」. 백제의 와전, 일본 아스카시대의 기와의 연화문과 테라마치 폐사 출토의 전, 수막새와의 비교, 혹은 백제사원의 유사례가, 개인적인 짧은 식견으로는 테라마치폐사의 가람배치(중문에 들어가면 서쪽으로 금당, 동쪽에 탑, 북쪽으로 강당이 배치되어, 중문양측에서 강당양측으로 회랑을 두른, 나라 법기사의 가람배치와 공통되는 소위 「법기사식」)에 관한 검토등을 통하여, 백제와 관계하는 일본소재사원이나, 일본에서 제작된 불상이, 백제의 전통을 어떻게 전하여, 또한 어떤 식으로 일본화해 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점에 노력해보고자 한다.

7・8世紀の百済系渡来人と日本
-百済王氏の成立の動向を中心として-

崔 恩永
滋賀県立大学人間文化科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1. はじめに

くだらのこにきし
百済王氏は、百済最後の国王である義慈王の王子善光(禪広)を始祖とする百済渡来系の氏族である。善光は、兄の豊璋とともに「質」として日本(倭国)に來朝した。斉明6年(660)百済に滅亡という危機が発生する、豊璋は復興運動のため帰国したが、善光は同行せず日本に留まった。しかし、白村江の戦い(663)に敗北した後、復興運動が失敗に終わると、母国を失った善光とその一族は、そのまま日本に定着するしかなかった。

百済王族の旧姓は「扶余・余」であったが、善光は、7世紀末の持統朝に至って「百済王」という姓が賜与され、その子孫も「百済王」を称することになった。そして、奈良・平安時代の中で、日本官人として活発に活動することになる。

したがって、善光の一族に「百済王」という姓が授与される状況とその意味を検討し、日本の律令体制の中での百済王氏の動向と性格について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

2. 百済王氏の成立

『続日本紀』天平神護二年(766)6月壬子条(敬福薨伝)によると、善光を先祖とする百済王氏の出身は「出自百済国義慈王」すなわち、百済国の義慈王から出たという。

善光は、兄の豊璋とともに舒明3年(631)3月または、皇極元年(642)から2年(643)ごろに來朝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

善光の一族は、持統5～7年(691～693)の間に「百済王」の姓と官位が賜与されたが、天智・天武朝にも「百済王」と称されている。これは、善光の一族を称する集団的な呼称であり、持統朝以前までには「蕃客(百済王権を象徴する存在)」、旧百済王族として待遇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そして、持統朝に「百済王」の姓と官位を賜与され、旧百済王族である立場から日本官人になる。

3. 日本律令国家の中での百済王氏の動向

「百済王」を称することになった善光の一族は、日本王権によって摂津国難波郡に居住し、以降、河内国交野郡中宮に移住して本拠地にした。そして、この地に「百済寺」という氏寺を造営したと知られている。百済王氏の中でもっとも活動が目されている人物は、善光のひ孫である百済王敬福である。敬福は、東大寺の大仏を造営するとき、黄金を献上して、大きな貢献をした。また、百済王氏は東北地方に任ぜられ、経営と征夷事業に関わり、平安時代まで中級貴族として活発な活動をした。なお、百済王氏は、天皇が交野に行幸するときに奉仕し、天皇との良い関係を維持したとみられる。

平安時代初期には、桓武天皇の母である高野新笠が百済系渡来氏族である和氏の出身であったので、天皇の外戚として優遇された。また、百済王氏の出身の女人たちは、天皇の後宮の宮人とし、天皇と私的なつながりを結んで繁栄した。

百済王氏は、平安時代までには中級貴族として存続したが、その以降にはだんだん記録が減って衰退したものと思われる。

4. おわりに

百済王氏の動向は、渡来系の氏族が日本に定着・同化する過程を確認できる重要な資料であり、7世紀末から8世紀初頭の国際情勢の変化と日本の律令体制の形成にも関連を持つ。これは、旧百済王族の出身である百済王氏の特殊な立場から説明できる。日本政権に編入された百済王氏は、新たな秩序の中で同化されたが、渡来系としての特性を残した。

7·8세기의 백제제도래인과 일본
- 백제왕씨 성립의 동향을 중심으로 -

최은영
시가현립대학 인간문화학연구과 박사과정

1. 머릿말

백제왕씨(쿠다라노 코니키시)는, 백제 최후의 국왕인 의자왕의 왕자, 선광을 시조로 하는 백제 도래계의 씨족이다. 선광은, 형의 풍장과 더불어 인질로서 일본 조정에 왔다.齊明 6년(660), 백제 멸망의 위기가 발생하여, 풍장은 복흥운동을 위해 귀국했으나, 선광은 동행하지 않고 일본에 남았다. 하지만, 백촌강전투(663)에서 패배한 뒤, 복흥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모국을 잃은 선광과 그 일족은, 그 대로 일본에 정착하는 수 밖에 없었다.

백제왕족의 옛 성은 부여나 여씨 였는데, 선광은 7세기말의 지통천황기에 이르러 백제왕이라는 성을 수여 받아, 그 자손도 백제왕이라는 성을 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와 헤이안시대에도, 일본관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선광의 일족에 백제왕이라는 성이 수여된 정황과 그 의미를 검토하여, 일본의 율령체제 중에서 백제왕씨의 동향과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백제왕씨의 성립

『続日本紀』天平神護二年(766)6월 임자조(敬福薨傳)에 의하면, 선광을 선조로 하는 백제왕씨 출신은「出自百濟國義慈王」즉, 백제국의 의자왕에서 나왔다고 한다.

선광은, 형의 풍장과 더불어 舒明 3年(631) 3월 혹은, 皇極元年(642)에서 2년(643)경에 일본 조정에 온 것으로 생각된다.

선광일족은, 持統 5~7年(691~693)의 사이에 백제왕이라는 성과 관위가 수여되었는데, 천지, 천무천황기에도 백제왕이라 불리고 있다. 이는 선광의 일족을 칭하는 집단적 호칭이며, 지통천황 이전까지는「蕃客(백제왕권을 상징하는 존재)」, 옛 백제왕족으로서 대우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통천황대에 백제왕의 성과 관위를 수여받아, 옛 백제왕족인 입장에서 일본관인이 된다.

3. 일본율령국가에서의 백제왕씨 동향

백제왕을 칭하게 된 선광 일족은, 일본왕권에 의해 撰津國難波郡셋츠노쿠니 나니와노코오리에 거주하였고 이후, 河内國交野郡中宮카와치노쿠니 카타노노코오리 나카미야에 이주해 본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곳에 백제사라는 우지테라(일족이나, 특정 가문의 절)를 조영한 것이 알려진다. 백제왕씨 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주목되는 인물은 선광의 증손자인 백제왕경복이다. 경복은 동대사의 대불을 조영할 때, 황금을 헌상하여,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백제왕씨는 동북지방에 임명되어 경영과 정이사업(오랑캐 토벌)에 관여하며, 헤이안시대까지 중급귀족으로서 활발히 활동한다. 다만, 백제 왕씨는 천황이 카타노노코오리에 행행할 때 봉사하여, 천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인다.

헤이안시대 초기에는 환무천황의 모친인 高野新笠타카노 니이가사가 백제계 도래씨족인 화씨 출신이었으므로 천황의 외척으로서 대우 받았다. 또한 백제왕씨의 출신인 여인들은, 천황의 후궁으로 되어, 천황과 사적인 연을 가지고 번영하였다.

백제왕씨는, 헤이안시대까지 중급귀족으로서 존속했는데, 이후에는 점점 기록이 줄어들어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4. 끝맺음

백제왕씨의 동향은, 도래계의 씨족이 일본에 정착, 동화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7세기말에서 8세기초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율령체제의 형성에도 관련을 가진다. 이는 옛 백제왕족 출신인 백제왕씨의 특수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일본정권에 편입된 백제왕씨는 새로운 질서안에 동화되었으며, 도래계로서의 특징을 남겼다.

古代日韓における筒形土製品小考

—その形態を中心として—

帝塚山大学人文科学研究科日本伝統文化専攻

博士後期課程 西垣遼

古墳時代中期以降、渡来系と考えられる集落や生産遺跡を中心に、大型で筒抜けの土製品がしばしば確認される。それらの土製品は、形態的特徴から筒形土製品と呼ばれる。近年では、百済地域に多い煙筒形土製品（煙突）に類似していることから、日本列島においても煙突形土製品、土製煙筒などと呼ばれ、その機能は煙突として考えられることが多い。本発表では、筒形土製品の主たる機能である煙突としての機能を有する筒形土製品を中心にみていきたい。

日本列島の筒形土製品の多くは、渡来系遺物を少なからず伴う遺跡から出土することから、韓半島の影響によって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崔 2010 など）。なかでも、百済地域からの影響が指摘され、その源流は全羅南道東部の百済・馬韓地域と推定される（田中 2014）。また、受容当初は祭祀と密接にかかわる資料であったが、国内に導入される過程でその機能が分化し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坂 1996）。そういった流れの中で、筒形土製品には、いくつかの機能が考えられている。煙突や竈の構築部材、土管、棺などである。そのため、類似した形態をしていても、異なった機能が考えられる（坂 2007）。さらに、煙突の機能を有していても、住居の竈に伴う煙突や鉄生産の鍛冶炉に伴う煙突、窯業生産に伴う煙突などが推定されるが、同一の機能であっても、その使用場所に違いが生じる。こうした使用場所の違いが、筒形土製品の形態にどのような形で現れているかは明らかとなっていない。

煙突として考えられる筒形土製品は、遅くとも5世紀中頃には韓半島から日本列島に伝わり、6～7世紀には形を変化させながらも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使用期間が長いにもかかわらず、普遍的に確認できる資料ではなく、日常生活で普及するような性格の土製品ではないことが指摘される。また、7世紀になると大型化する資料と、それまでと変わらない大きさに筒形土製品が分化すると考えられているが、その変遷についても不明瞭なところがある。

そこで、本発表では、煙突として考えられる筒形土製品を取り上げて、これらの資料の再整理を行い、使用場所によって筒形土製品に形態差があるのかといったことや、7世紀に筒形土製品が分化することについても再検討していきたい。

고대 한일의 통형토제품 소고
- 그 형태를 중심으로 -

테츠카야마대학 인문과학연구과 일본전통문화전공
박사과정 니시카키 료

고분시대 중기이후, 도래계라고 생각되는 집락이나 생산유적을 중심으로, 대형의 통에서 만든 토제품이 자주 확인된다. 그러한 토제품은, 그 형태의 특징으로부터 통형토제품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백제지역에 많은 연통형 토제품(굴뚝)에 유사한 것에서, 일본열도에 있어서도 굴뚝형 토제품, 토제연통 등으로 불리는데, 그 기능은 굴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 발표에서는, 통형토제품의 주 기능인 굴뚝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통형토제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열도의 통형토제품의 대부분은, 도래계유물을 적지않게 포함한 유적에서 출토하는 것으로부터, 한반도의 영향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崔 2010 등). 그 중에서도, 백제지역으로 부터의 영향이 지적되어, 그 원류는 전라남도 동부의 백제 마한지역이라고 추정된다(田中 2014).

또한 수용 당시에는 제사와 밀접히 관련된 자료였는데,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분화했을 가능성이 생각된다(坂 1996). 그러한 흐름 중, 통형토제품에는, 몇가지의 기능이 생각된다. 굴뚝이나, 아궁이(또는 부뚜막이나 화덕)의 건축부재, 토관, 관 등이다. 그 때문에, 유사한 형태를 하여도, 다른 기능으로 생각된다(坂 2007).

또한 굴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의 아궁이에 필요한 굴뚝이나, 철생산의 용광로(대장간의)에 필요한 굴뚝, 요업생산에 필요한 굴뚝 등으로 추정되는데, 동일한 기능이더라도, 그 사용 장소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사용장소의 차이가, 통형토제품의 기능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굴뚝으로서 생각되는 통형토제품은, 늦어도 5 세기 중엽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전해져, 6 에서 7 세기에는 변화시키면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보급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토제품이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7 세기가 되면 대형화되는 자료와, 이 때까지도 같은 크기로 통형토제품이 분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변천에 대하여도 불분명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발표에서는 굴뚝으로 생각되는 통형토제품을 들어, 이러한 자료의 재정리를 하여, 사용장소에 따라 통형토제품에 형태 차이나, 7 세기에 통형토제품이 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자 한다.

李スルチョロン(東京学芸大学大学院)

1. はじめに

日本の横穴式石室は韓半島の百済から影響を受けて築造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九州で4世紀末初めて横穴式石室が築造されるが、土器の副葬風習は確認できない。一方、5世紀末から始まる畿内系横穴式石室では土器の副葬風習が見られる。日本列島の横穴式石室起源と考えられている百済の横穴式石室でも畿内系横穴式石室のように石室で土器の副葬風習が見られる。本発表では畿内系横穴式石室の土器副葬理由について畿内と百済の横穴式石室から出土土器から考える。

2. 畿内と百済の横穴式石室における副葬土器の様相の差

○導入期畿内系横穴式石室出土の副葬土器の器種

・高井田山古墳

TK23型式の高杯、ハソウが石室内玄門付近から出土

・寺口忍海D-27号墳

TK47型式の杯身、蓋杯が羨道部から、玄室から土師器壺が1点出土

・巨勢山408号墳

玄室の奥壁からMT15型式の器台、短頸壺、広口壺、蓋杯、杯身が出土
器台の上に広口壺が乗ったままの状態を検出

○初期百済横穴式石室出土の副葬土器の器種

・馬霞里古墳群ソウル大学石室墓

玄室の羨道付近から深鉢型土器、長卵形土器、壺、直口広肩壺が出土

・水村里遺跡4号墳

玄室から壺、蓋、高杯型器台、直口短頸壺、広口長頸壺、広口壺、大形甕、大型壺が出土

・松院里遺跡KM-16号墳

玄室から器台、長胴壺、小壺、高杯、蓋杯、三足土器、短頸壺、壺、杯身片が出土

3. 副葬土器の様相差に関する考察

○短頸壺の石室内出現

- ・百済：4世紀からよく見られる器種、4世紀からすでに横穴式石室に副葬
- ・導入期畿内系横穴式石室ではあまりみられない一方、百済では重要副葬土器

○器台、台付・脚付土器の副葬について

- ・畿内：高杯、器台、台付長頸壺の副葬→台や脚付の器種の副葬が認められる(MT15型式から)
- ・器台や台付・脚付土器の副葬は伽耶や新羅の葬送儀礼から影響をうけた可能性は？

4. 終わりに

導入期畿内系横穴式石室と初期百済横穴式石室の副葬土器の様相について器種を中心に検討を行った。今回は墓制と土器副葬を通して日本列島と百済の共通点を探る点に重点を置いたが、共通点はないと判断した。また、韓半島に関しては中西地域だけ研究対象にしていたので今後韓半島南部地域の土器副葬様相と比較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点があった。

初期百済の横穴式石室と導入期畿内系横穴式石室に副葬された土器の器種を単純に比較することで終わってしまったが、これからもっと広い範囲で石室を含む埋葬施設と副葬土器の関係性について考える。その中で韓半島と日本列島の5世紀～6世紀の交流について考えていきたい。

1. 처음으로

일본의 횡혈식석실은 한반도의 백제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생각된다. 4세기말 처음으로九州 지방에 횡혈식석실이 築造 되는데九州의 횡혈식석실에서는 토기 副葬품습이 확인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5세기말부터 築造가 시작되는 畿内系 횡혈식석실에서는 토기의 副葬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횡혈식석실의 기원이라 생각되는 백제의 횡혈식석실에서도 畿内系 횡혈식 석실과 같이 석실에서 토기의 부장이 확인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畿内系 횡혈식석실의 토기부장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시작 되었는지 백제의 횡혈식석실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2. 기내와 백제의 횡혈식석실에 대한 부장토기 양상의 차이

○도입기 기내계 횡혈식 석실 출토 부장토기의 기종

· 高井田山古墳

TK23형식의 高杯, 有孔小壺가 석실 내 玄門 부근에서 출토

· 寺口忍海D-27号墳

TK47형식의 杯, 蓋杯가 羨道부근에서 출토, 현실에서 土師器壺가 1점 출토

· 巨勢山古墳408号墳

玄室의 前壁에서 MT15형식의 器臺, 短頸壺, 廣口壺, 蓋杯, 杯가 출토

器臺의 위에 廣口壺가 올라온 상태로 검출

○초기 백제 횡혈식석실 출토 부장토기의 기종

· 마하리고분군 서울대학교석실묘

玄室의 연도부근에서 深鉢型土器, 長卵形土器, 壺, 直口廣肩壺가 출토

· 수촌리유적 4호분

玄室에서 壺, 蓋, 高杯型器臺, 直口短頸壺, 廣口長頸壺, 廣口壺, 大型甕, 大型壺가 출토

· 송원리유적 KM-16호분

玄室에서 器臺, 長胴壺, 小壺, 高杯, 蓋杯, 三足器, 短頸壺, 壺, 杯身片이 출토

3. 副葬土器 樣相의 차이에 관한 考察

○短頸壺의 石室內 출현에 대해

· 백제:4세기부터 쉽게 볼 수 있는 기종이며 4세기 말의 横穴式石室에 부장

· 導入期 畿内系 横穴式石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기종이나 백제에서는 주요부장토기

○器臺, 臺付·脚付토기의 부장에 대해

· 畿内:高杯, 器臺, 臺付長頸壺의 副葬→ 臺·脚이 있는 기종의 부장이 확인(MT15형식 이후)

· 器臺나 臺付·脚付토기의 부장은 가야와 신라의 葬送儀禮에서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음

4. 끝으로

導入期 畿内系 횡혈식석실과 초기 백제 횡혈식석실의 부장토기의 양상에 대해 기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는 墓制와 土器副葬을 통한 일본열도와 백제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공통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연구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土器副葬樣相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석실의 부장토기의 副葬樣相 비교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넓은 범위로 석실을 포함한 매장시설과 부장토기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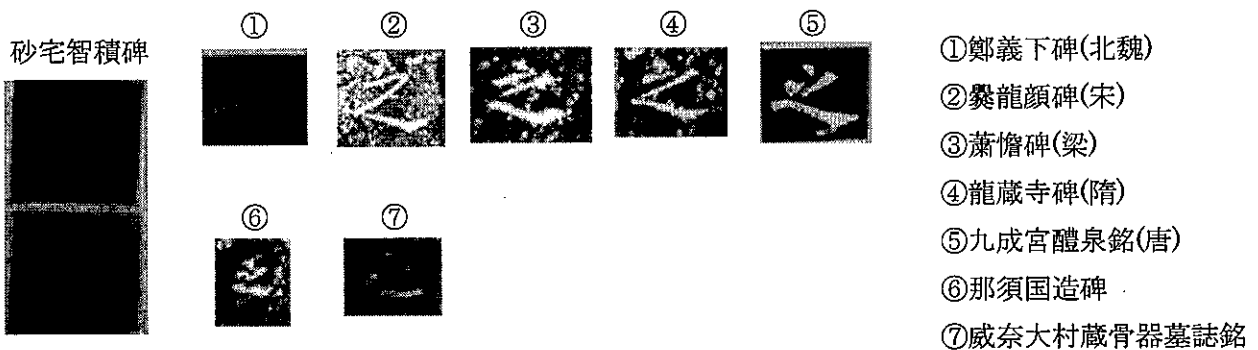
砂宅智積碑(654年)は、百済の奈祇城に住む砂宅智積という人物が、寺の塔と堂を建立したことを記念するためにつくられた碑であり、建立の目的や動機が四六駢儷体で書かれている。砂宅智積は、百済最後の王である義慈王の時代に、大佐平を歴任し、642年に倭国へ行ったことのある百済末期のエリートである。本碑は、百済の書道史を述べるうえで、数少ない材料のひとつとして大変重要なものである。その書風に関しては、中国・唐時代の欧陽詢体や中国・南北朝時代の南朝系であるという見方に加え、北朝系であるという見方など多岐に渡る。しかし、発見が1948年と比較的近年であることや書道における朝鮮史料への着目の不十分さから、確然たる議論はなされていない。

砂宅智積碑は中国書道史上の何から影響を受けたものであるのか。異体字の検証と、中国5～7世紀の各国の遺文から砂宅智積碑に最も近いものを取り上げて書風の比較を行った。その結果、中国南北朝時代から隋時代に向かうにつれて類似がみられるが、唐時代とは異な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を前述した見方に当てはめると、まず欧陽詢体というのは誤りである。加えて、百済の政治的背景を考慮すれば、北朝系は理に合わないのであるが、北魏の鄭義下碑との類似がみられるのはなぜであろうか。

6世紀初頭の北朝は、南朝の漢文化を大いに取り入れた時期であり、鄭義下碑の書丹者である鄭道昭の父は南朝に使している。このことから、北朝の中でも末期のものであれば、砂宅智積碑と類似しているとの見方も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つまり砂宅智積碑は、唐時代の整備された美しさをもつものとは遠く、隋時代や、南北朝時代の中でも装飾性をそぎ落とした素朴な美しさをもつ末期のものに近いといえる。

次に日本書道史上の遺文と砂宅智積碑とを比較するとどうであろうか。前述の考察から、唐様式といわれるものを省き、南北朝や隋様式といわれるものと比較してみる。すると、南北朝様式といわれる日本所在の遺文とは類似がみられるが、隋様式といわれる遺文とは異なった点が多い。つまり、日本における南北朝様式といわれるものはもっぱら百済を通じて伝わったが、隋様式は百済以外の経路や、直接隋からも伝わったため、隋様式の捉え方は百済と日本との各々で異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

今後は、百済の書道史においても一つ重要な遺文である武寧王陵墓誌をあわせて、より詳細な考察をしていきたい。



하야카와 미도리(나라교육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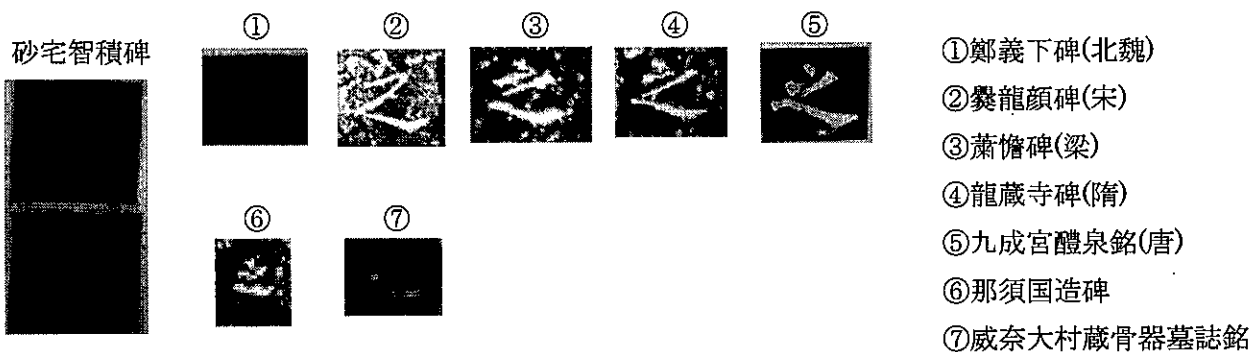
사택지적비는(654 년)는, 백제의 나지성에 사는 사택지적이라는 인물이, 사원에 탑과 당을 건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로, 건립의 목적이나 동기가 사육번려체로 쓰여져있다. 사택지적은, 백제 최후의 왕인 의자왕대에, 대좌평을 역임하고, 642 년에 왜국으로 건너간 일이 있는 백제 말기의 엘리트이다. 이 비는, 백제의 서예사를 기술하는데, 수가 적은 유물의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서풍에 관하여는, 중국 당대의 구양순체나, 중국 남북조시대의 남조계라고하는 시점과 더불어, 북조계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하다. 하지만, 발견이 1948년으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점이나 서예사에 있어서의 한국자료의 대한 착목이 불충분한 점등,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택지적비는 중국서예사 중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일까. 이체자의 검증과, 중국의 5 세기에서 7 세기의 각국의 서체에서 사택지적비에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 서체의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수시대로 가는 시기에 유사점이 보이는데, 당시대와는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앞서말한 시점에 맞춰보면, 먼저 구양순체라고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 백제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조계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북위 정의하비와의 유사점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

6 세기초의 북조는 남조의 漢문화를 크게 받아들인 시기로서, 정의하비의 서단자(비문을 새기기전 비석에 글을 쓴 사람)인 정도소의 아버지는 남조에 사절로 갔다. 이로부터 북조에서도 말기의 것이라면 사택지적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사택지적비는 당시대에 정비된 미를 가지는 것과는 멀며, 수시대나, 남북조시대 중에서도 장식성을 제외한 소박한 미를 가지는 말기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서예사에서의 서풍과 사택지적비를 비교하면 어떨까. 진술의 고찰에서 당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북조나 수양식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남북조양식이라고 불리는 일본 소재의 서풍과는 유사점이 보이지만, 수양식이라고 불리는 서풍과는 다른 점이 많다. 즉, 일본에서 남북조양식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백제를 통하여 전해왔는데, 수양식은 백제 이외의 경로나, 직접 수나라로 부터 전해 왔기때문에 수양식의 수용은 백제와 일본이 각각 달랐을 것이라 보인다.

다음에는, 백제의 서예사에 있어서 또하나의 중요한 유물인 무령왕릉의 묘지를 시야에 넣어, 보다 상세한 고찰을 해 가고자 한다.



...the first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second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third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fourth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fifth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sixth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seventh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eighth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

...the ninth of these is the fact that the ...